

#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The Effects of Adult Children Related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Male and Female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김 은 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Assistant Prof.: Kim, Eun-Kyung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hildren related variabl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Data for this study were based on a study of 203 elderly people residing in Kyungnam, Korea. Elderly male achieved higher scores in life satisfaction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Demographic variables, except for subjective financial status, failed to account for the significant variance in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children related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Number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ale elderly. For the female elderly, affectional solidarity and associational solidar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their life satisfaction. Associational solidarity had the stronges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both male and female elderl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relative importance of children related variables to the rural elderly.

▲ 주요어(Key word) ;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농촌노인(rural elderly), 성인자녀(adult children), 성차(gender differences)

### I. 서 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2002). 특히 동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14.7%이며, 노령화 지수의 경우 동지역이 25.3인데 비해 읍면 지역은 78.7로 농촌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에 비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 고령인구의 경우 남녀의 성비가 60-64세 (80.1), 65-69 (73.5), 70-74세 (63.8), 75-79세 (59.8), 80-84세 (49.4), 85이상 (31.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각한 여초현상을

보여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통계청, 2002). 농촌의 노인인구 증가현상은 획기적인 사회정책상의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영향도 있으나 도시 산업발전과 농촌 환경의 악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 인구가 대거 이농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농촌사회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농촌 사회에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농촌 노인문제의 특징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과 같은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노인층이 점점 더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을 느끼고

\* 주저자 : 김은경(E-mail : eunkyung@sarim.changwon.ac.kr)

동시에 노화현상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 노인들은 도시지역 노인들과는 달리 자녀들의 직장이나 경제문제로 인해 기혼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높아 1998년 도시지역의 노인단독 가구의 비율이 36.4%인데 반해 농촌지역 노인단독세대 가구 비율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농촌노인들은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도시노인보다 취약하여 비공식적인 지원망 특히 가족에 의존해야 하는데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도시 노인에 비해 많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접촉빈도 또한 도시 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이가옥, 1995) 우리나라의 복지시책 하에서 자녀와의 별거는 농촌 노인들의 경제적부양과 정서적 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김현조의, 1988). 또한 농촌노인은 문화적인 혜택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도시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충선, 1990).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질적인 측면의 문제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지훈, 1997; 조병은, 199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농촌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농촌지역에서 노인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농촌노인들의 자녀관계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 여성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고 특히 농촌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비교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농촌의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노인 문제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생활만족도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생활경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생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곧 삶의 질을 연구하는 것으로 노인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어떠한 상황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생활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나 적응, 행복도, 자기 등의 개념으로 혼용하기도

한다. George (1979)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집점을 두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한 최성재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최성재, 1986).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의미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또한 노화과정에 따른 사회환경적, 생리적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여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성공적인 노화는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며, 노인 자신과 주변환경과의 적응의 산물로 볼 수 있는 생활만족도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결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 2. 생활만족도 관련변인과 성차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김명자, 1982; 조명희, 2000; 홍순혜, 1984)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노인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Liang, 1982; Palmore & Kivett, 1977; 김선희, 1989; 박혜인·최미경, 1991).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들은 노후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ishop et al., 1988; Lee & Ellithorpe, 1982). Bishop과 그의 동료들(1988)은 남자노인의 경우 건강의 역할이 노인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인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남자노인과는 반대로 건강보다는 가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ee와 Ellithorpe(198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와 모선희(1997)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 자녀의 수는 노후생활만족을 설명해 주는 주요변인은 아니지만 서로 정적 관계에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수는 노후생활만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유성호(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결혼상태에 상관없이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가 그들의 노후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노인은 결혼한 성인자녀

와의 동거가 그들의 심리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유무가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 (박경란·임춘희, 1989). 반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상태와 소득이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상태,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 및 소득이 이들의 노후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다 (유성호, 1997). 이는 남자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계유지자로서 소득을 유지하던 입장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자노인과는 달리 소득 상태를 자기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3. 사회경제적 배경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 유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연령은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중단적 연구를 통해 Palmore & Kivett (1977)는 연령에 따른 노인만족도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노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노년기 준비기간이 길어 적응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연령이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박충선, 1990)가 있어 연령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 (김명자, 1982; 박충선, 1989)이나 교육수준 자체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득, 활동내용 등의 관련변인과 복잡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관한 선행연구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Lopata, 1978) 사망률이나 자살률이 더 낮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 반면 서구와는 달리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한성열, 1990).

노인의 경제활동상태는 노인의 직업적 지위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annell & Dupuis, 1996),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일반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의미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건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시해 주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은 일관성 있게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을 가져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나쁠수록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서말희·유가호, 1999).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건강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옥희·신효식 1991; 주성수·윤숙례, 1993).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경제적 생활수준 또는 만족감은 노인들의 경제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보다 심리적 만족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Spreitzer & Snyder, 1974).

### 4. 자녀관련 변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가족은 노년기 개인의 정서적·수단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용한 자원이며, 가족관계는 소속감과 안정감, 만족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노년기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Mancini, 1979; Shanas, 1979).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일생을 통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중의 하나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노후에 자녀와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부모자녀간의 결속이 노부모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최혜경, 1985). 더욱이 최근에는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및 소수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관계유지 기간이 어느 때보다 길어짐에 따라 그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수, 자녀의 집과의 거리, 성인자녀와의 동거 유무, 자녀와의 접촉빈도,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도, 자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자녀의 수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갖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서미경, 1990)와 자녀 수가 전체 노인에게는 아니지만 여성노인에게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 (유성호·모선희, 1997)가 있는 반면 자녀의 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문애리, 1996; 유성호, 1997)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다.

자녀와의 동거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이가옥 등 1994; 김태현 등, 1998; 김익기 등 1999; 권중돈·조주연, 2000)가 있는 반면 자녀와의 동거유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다 (김종숙, 1987; 김태현, 1981; 서병숙, 1989; 최성재, 1984).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고

려되자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행복감은 자녀와의 동·별거 여부보다는 노인의 상황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혜·윤순덕, 2001).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접촉빈도, 부양과 함께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애착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로 연구되어 왔다. 자녀와의 거주거리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서 노인들이 다른 아들이나 딸보다 큰 아들과 더 가까이 살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부양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자녀와의 근접도가 노인들의 인생만족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 (김지훈, 1997; 조병은, 1990)가 있는 반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할 경우 자녀들과의 거주 근접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Matthews, 1979).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도시노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가옥, 1989) 자녀와의 거주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할수록 더 많은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대도시 노인들에 비해 더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전통적인 직계가족제도로 인한 문화적인 유산때문에 큰 아들에 대한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고 큰 아들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고 도움을 받고 부양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조병은, 1990) 큰 아들집까지의 거주거리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접촉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연구결과 간에 상반된 보고가 나타나고 있다. Mancini & Bliesner (1989)는 성인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고, Talbott (1990)에 의하면 자녀와의 접촉이 부모의 신체가 쇠약해질 때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존성과 자경심의 상실로 인해 자녀와의 접촉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촌단독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지훈 (1997)의 연구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인생만족도를 조사한 조병은 (1990)의 연구에서는 서구의 결과와는 달리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빈번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최혜경, 1985; 한임섭, 1987),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 (김수연, 1987; 김효정, 1995), 자녀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부양체계가 거의 없이 노후를 주로 자녀에게 의지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노인과 성인 자녀의 주관적 유대관계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만족스러운 정서적 교류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권중돈·조주연, 2000).

노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원조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없음이 나타났다 (김현덕, 1994). 반면 한국, 말레이시아, 피지, 필리핀의 노인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자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한국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Ferraro & Su, 1999).

현재까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농촌노인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당수의 연구들이 노후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변수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남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7.4년이나 길고 유배우 자율이 훨씬 낮다 (통계청, 2001). 농촌의 여성노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농촌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 더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남성노인들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노인들이 직업을 없고 노년기에 수입이 없어 자녀에게 의존하기 쉽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홀로되기 쉽고, 젊은 시절의 잦은 출산으로 인해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로 인해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노인을 통합하여 하나로 분석하는 분석방법은 노후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파악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유성호, 1997). 본 연구는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노인 72명과 여자노인 131명의 총 203명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남자노인 15명과 여자노인 15명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에 이루어졌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 관련변인으로 밝혀

진 총 14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 중 6개의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나이, 교육유무, 직업유무, 주관적인 생활수준, 건강, 배우자 유무가 포함된다. 자녀관련변인은 7개로 자녀의 수, 큰 아들 집과의 거리, 결혼한 아들과의 동거유무, 애정적 결속, 접촉적 결속,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 자녀로부터 수입 보조를 사용하였으며 생활만족도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농촌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변인 중에서 연령, 교육유무, 직업유무, 주관적인 생활수준, 배우자 유무는 모두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노인들의 건강은 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s)를 통해 측정하였다 (Fillenbaum, 1988). ADLs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장보기, 음식조리, 집안일, 약복용, 목욕 등의 14가지 항목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통해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2) 자녀와의 결속도

자녀와의 결속도는 Bengtson과 Black (1983)에 의해 개발된 Family Solidarity Scale 중에서 노인이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묻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애정적 결속 항목과 자녀와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함께 하는지를 묻는 5문항의 접촉적 결속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와의 결속도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93과 .72이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성재 (1986)가 개발한 과거차원의 내용, 현재 차원의 내용, 미래차원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의 3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이 중 예비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1개의 문항을 제외한 19개의 문항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hbach's Alpha 값은 0.87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차이를 t-test와 chi-square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고, 2단계에서는 연구에 포함된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별로 나누어서 파악하였

다. 마지막으로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차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3.79세였고 여성노인은 73.27세였으며, 남성노인의 73.6%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노인은 33.6%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비율도 여성노인 (29.8%)에 비해 남성노인(84.7%)이 월등히 높았다. 여성노인들의 반 정도가 (42.7%)가 혼자 거주하는 반면 남성노인들은 대부분 (70.8%)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연평균 수입에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노인의 55%가 연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반면 남성노인은 34.7%만이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졌고 연평균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여성노인 (6.1%)의 2배 이상인 13.9%나되었으며, 주관적인 생활수준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큰아들 집과의 거리와 자녀수는 남자 노인과 여자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로부터 수입을 보조받는 비율이 남성노인(29.2%)에 비해 여성노인(84.7%)이 3배 가까이 높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도 남성노인(73.6%)이 여성노인(51.1%)에 비해 훨씬 많았다.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에서는 남녀 노인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접촉적 결속은 남성노인이 높게 나타나 남성노인들이 자녀와 더 많은 접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활만족도는 남성노인이 중앙값인 19점에 비해 높은 21.28인 반면 여성노인은 17.52로 나타나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남성노인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관련변인의 남녀간 비교의 결과를 보면 농촌 여성노인의 상황이 남성노인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구분	남자 (n=72)	여자 (n=131)	t-test/ $\chi^2$
연령		73.79	73.27	0.64
교육유무1)	교육 못 받음	19 (26.4)	87 (66.4)	29.83***
	교육받음	53 (73.6)	44 (33.6)	
배우자 유무1)	배우자 있음	61 (84.7)	39 (29.8)	56.13***
	배우자 사별	11 (15.3)	92 (70.2)	
누구와 사나1)	독거	9 (12.5)	56 (42.7)	44.73***
	배우자와	51 (70.8)	37 (28.2)	
	결혼한 아들	6 (8.3)	24 (18.3)	
	결혼한 딸	0	2 (1.5)	
	미혼자녀	1 (1.4)	4 (3.1)	
연평균 수입1)	100만원 이하	25 (34.7)	72 (55.0)	18.5**
	101-199	8 (11.1)	26 (19.8)	
	200-299	18 (25.0)	19 (14.5)	
	300-399	7 (9.7)	4 (3.1)	
	400-499	4 (5.6)	2 (1.5)	
주관적 생활수준		2.99	2.69	2.93**
	동거	9 (12.5)	22 (16.8)	2.42
큰아들집과의 거리1)	1시간	36 (50.0)	54 (41.2)	
	2시간	15 (20.8)	29 (22.1)	
	3시간	2 (2.8)	6 (4.6)	
	4시간 이상	10 (13.9)	20 (15.3)	
자녀수		4.53	4.73	-1.09
수입자녀보조1)	받음	21 (29.2)	111 (84.7)	5.57*
	받지 않음	51 (70.8)	20 (15.3)	
직업1)	무	19 (26.4)	64 (48.9)	9.70**
	유	53 (73.6)	67 (51.1)	
애정적 결속		53.68	51.97	1.91
접촉적 결속		16.53	14.91	3.00**
건강		41.68	41.14	2.33*
생활만족도		21.28	17.52	2.73**

1) 수치는 빈도 및 백분율과 chi-square 값을 나타냄

\* p<.05, \*\* p<.01, \*\*\* p<.001

## 2.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는 남성노인들의 나이와 직업간의 상관 관계 ( $r=-.51, p<.001$ )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노인들의 나이와 직업간의 상관관계가 ( $r=-.51, p<.001$ ) .50보다 높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회귀분석시의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통해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말하나 (박성현, 1989), 남자노인의 회귀분석 결과 이 수치가 1.12에서 1.84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나이와 교육 유무, 직업유무, 배우자 유무가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생활만족도와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이 없고 배우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은 나이가 건강과 강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져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쁜 것으로 보인다. 남녀노인 모두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생활만족도와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들의 경우 직업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성노인들은 교육과 건강이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교육을 받고 건강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유무는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와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와는 낮은 상관을 나타내서 남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 않았다.

자녀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자녀의 수,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이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와 애정적 결속이 높고, 자녀와 자주 접촉하는 노인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나이														
교육유무														
직업														
주관적 생활수준														
건강														
배우자 유무														
자녀의 수														
큰아들 집과의 거리														
결혼한 아들과 동거														
애정적 결속														
접촉적 결속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														
자녀로부터 수입보조														
생활만족도														

\*대각선 위는 남성노인집단에서의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는 여성노인집단에서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p<.05, \*\*p<.01, \*\*\*p<.001

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의 수가 애정적 결속, 접촉적 결속, 자녀로부터의 수입의 보조와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져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들과 애정적인 결속과 접촉적 결속이 높고 자녀로부터 수입의 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노인은 자녀의 수가 자녀로부터 수입을 보조받는지의 유무와만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노인 모두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은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자녀와의 애정적인 유대가 많은 경우 더 빈번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농촌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농촌 남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자녀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설명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에 자녀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 설명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남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델 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모델 2는 자녀관련 변인을 포함한 분석 모델로서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제시한다.

먼저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이 포함된 모델 1에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설명력이 25%였으며, 여자노인에 대한 설명력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 주관적

인 생활수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노인은 교육유무, 주관적인 생활수준과 건강이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자녀관련 변인을 포함한 분석모델로 이를 통해 자녀관련 변인이 남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델 1에 자녀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남자 노인의 경우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직업유무와 교육유무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지고 남자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주관적인 생활수준만이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았다. 자녀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전체적인 설명력이 25%에서 49%로 변하여 24%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자노인도 전체적인 설명력이 16%에서 42%로 증가하여 설명력이 사회경제적변인만이 포함되었을 때보다 2.6배나 증가하였으며, F-value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F=3.84, p<.01에서 F=6.51, p<.001로)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여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자녀관련 변인 중에서 자녀의 수만이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관관계에서 자녀의 수가 남자노인의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관련하여 볼 때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의 수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여자노인은 남자노인과는 달리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들은 자녀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자녀

<표 3>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 남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변인	남자노인				여자노인			
	모델 1 사회경제적 변인		모델 2 가족관련 변인		모델 1 사회경제적 변인		모델 2 가족관련 변인	
	β	SE	β	SE	β	SE	β	SE
나이	-.01	.26	-.02	.25	.09	.14	.03	.12
교육유무 (유=2)	.03	2.53	-.17	2.46	.22*	1.63	.12	1.45
직업유무 (유=2)	.20	2.86	.23	2.72	.12	1.59	.04	1.44
주관적인 생활수준	.35**	1.44	.35**	1.32	.23*	1.21	.16*	1.08
건강	.07	1.30	.09	1.21	.20*	.41	.08	.37
배우자 유무 (유=1)	-.19	3.09	-.20	2.94	.05	1.74	.02	1.60
자녀의 수			.43***	.76			.12	.44
큰 아들 집과의 거리			.03	.58			-.02	.34
결혼한 아들과 동거 유무 (유=2)			.11	3.06			.15	1.82
애정적 결속			.15	.18			.23**	.10
접촉적 결속			.13	.29			.37***	.20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줌			.06	1.41			.08	.93
자녀로부터 수입의 보조 (유=2)			-.14	2.51			-.15	1.89
R <sup>2</sup>	.25		.49		.16		.42	
F-Value	3.56**		3.94**		3.84**		6.51***	

\*p<.05, \*\*p<.01, \*\*\*p<.001

와의 관계에 더 영향을 받아 자녀와 애정적 결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와 자주 접촉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남녀 노인 모두 큰아들 집과의 거리,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지와 자녀로부터 수입의 보조를 받는지의 유무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와는 달리 결혼한 자녀와 동거 유무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주관적인 생활수준을 제외하고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녀관련 변인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농촌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인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남녀 노인간의 연령의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노인이 교육경험이 적고, 배우자가 없고, 혼자 사는 경향이 높으며, 연령권 수입과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낮고, 직업도 없으며, 건강도 나쁜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관련 변인에 있어서도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자녀로부터의 수입의 보조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나 접촉적인 결속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남자노인보다 더 의존하고 있었으나 자녀와의 접촉의 빈도는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남자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특히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낮으며 자녀와의 접촉적 결속이 남자노인에 비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또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로부터의 수입의 보조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노인 (29.2%)에 비해 3배나 되는 84.7%의 여자노인의 자녀로부터 수입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여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남자 노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농촌 여자노인들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넷째,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그들의 생활만족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각되는데 반해 이들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평균 이하이고 (남성노인=2.99, 여성노인=2.69), 여성노인의 55%와 남성노인의 34.7%가 연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열악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 특히 농촌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자녀관련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기 전에는 교육유무와 건강이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관련 변인이 분석에 투입된 후 그 중요한 영향력은 사라졌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남자노인들 중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9%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자노인의 18.3%만이 소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남녀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다른 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는 달리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녀 노인 모두 배우자 유무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유무 자체보다는 배우자의 상실을 통한 경제력의 상실 등이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진다 (박혜인, 1991). 또한 농촌의 노인들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관계보다는 부모와 자식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관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섯째, 자녀관련 변인중 남자 노인과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의 수에 영향을 받아서 자녀의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에 따라 달라져서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고 접촉적 결속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기혼자녀와의 동거나 별거유무,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유무보다도 자녀의 수나 자녀와의 관계요인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녀와의 동거유무나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주는지의 여부, 자녀로부터 수입을 보조받는지의 여부는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자노인들의 경우 자녀의 수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관련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자녀의 수가 남자노인의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 ( $r=.23, p<.05$ )과 애정적 결속( $r=.29, p<.05$ )과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시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자녀의 수가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애정적 결속이나 접촉적 결속과는 상관을 가지지 않으며 자녀로부터의 수입의 보조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자녀와 별거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농촌여성노인들의 경우 자녀의 수는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조병은, 1990; 정혜정 외, 2000)와는 달리 애정적 결속이 아니라 접촉적 결속이 농촌 여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 여성노인들의 42.7%가 혼자서 생활을 하는 독거 여성노인이었으며 83.2%가 큰 아들집과의 거리가 1시간 이상이 된다고 보고한 것에 미루어 볼 때 자녀를 방문하거나, 자녀의 방문을 받고 전화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농촌 여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 ( $r=.33***, p<.001$ )에 미루어 볼 때 자녀와 별거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농촌 여성노인들의 경우 자녀와 자주 접촉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애정적 결속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거유무 자체가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이농으로 인해 단독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농촌의 현실에서 노인들 스스로도 전통적인 자녀에 의한 노부모부양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의 증가와 함께 주거형태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전환되어가는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과 접촉적 결속이 농촌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자녀들이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자주 접촉하고 애정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멀리 떨어져 사는 농촌 노부모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의 노부모 성인자녀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확장을 위해 가족 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농촌에 노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노인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은 농촌의 노인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인, 가족, 정부와 지역사회의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과 노인들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맞춤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농촌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석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정책의 수립시에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농촌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남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

한 접근도 달라야 된다고 본다. 현재 농촌노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고령인구의 여성화가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농촌 고령여성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의 지원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을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인 정책의 수립시에도 남성노인들과 여성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어 진다. 또한 사회적으로 딸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아들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딸과의 관계에 관한 변인도 포함하여 딸과의 관계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 접수일 : 2002년 5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1일

【참 고 문 헌】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김선희(1989).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노인의 자기보고식 측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익기 외 6인(1999). **한국 노인의 삶-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김종숙 (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훈 (1997). **농촌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성인자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김현덕(1994).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노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10**, 71-111.

김현조·박재홍·김석훈·최대환·지승중 (1988). 경남지역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6**, 1-83.

김효정·김명자(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36-46.

문애리(1996). 재미 한인 단독가구 노인의 사기와 사기에 관련된 변인. **한국노년학 16(1)**, 96-109.

박경란·임춘희(1989). 노년기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 **인제논총 5(1)**, 129-158.

박성현(1989). **회귀분석**. 민영사.

박충선(1989). 대구·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족생

- 활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3(1), 341-359.
- 박충선(1990). 한국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115-153.
- 박혜인·최미경(1991). 주거지역에 따른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7, 173-195.
- 서말희·유가호(1999). 대구근교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29-40.
- 서미경(1990).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완충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0, 68-86.
-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37-50.
- 유성호·모선희(1997). 노후생활만족에 관련된 변인: 남녀차이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37-49.
- 이가옥(1995). 노인의 거주형태 및 가족관계.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 209-230.
- 이가옥 외 3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 외(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정혜정·김태현·김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49-70.
- 조명희(200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조옥희·신효식(1991).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15-130.
- 주성수·윤숙혜(1991). 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간의 일반건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13(1), 55-62.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233-256.
-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인구부문)**. <http://www.nso.go.kr>.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요약**.
- 한경혜·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한성열(1990). 한국노인의 친밀한 인간관계와 생활만족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인문논집** 35, 17-35.
- 한입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gtson, V. L., & Black, K. D.(1983).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ur perspectives on theory development. Paper presented to the theory development workshop.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Toronto. October.
- Bishop, D., Epstein, N., Baldwin, L., Miller, I. & Keithner, G. (1988). Older couples: The effect of health, retirement, and family functioning on morale. **Family Systems Medicine** 6(2), 238-247.
- Ferraro, K. F. & Su, Y.(1999). Financial strain, social rela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people: A 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4, S3-S15.
- Fillenbaum, G. G. (1988). Multidimensional functional assessment of older adul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eorge, L. K.(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 210-216.
- Lee, G., & Ellithorpe, E. (1982).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17-224.
- Lia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7(1), 101-110.
- Lopata, H. Z.(1978). Contributions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s of metropolitan area widows: Limitation of the modified kin net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355-364.
- Mancini, J. A. & Bliesner, R.(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75-290.
- Mancini, J. A.(1979). Family relations and morale among people 65 years of age and old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 292-30.
- Mannell, R. C. & Dupuis, S.(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59-64.
- Palmore, E. & Kivett, R. Q.(1977).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 311-316.
- Shanas, L. S.(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2), 169-174.
- Spreitzer, E., & Snyder, E.(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8.
- Talbot, M. M. (1990). The negative si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widows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mother's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0(5), 595-603.